

작품 내용

제 목	지우개 가루와 출처 한 줄
내 용	책상 위에는 하얗게 지우개 가루가 소복히 쌓여 있었다. 종이 위에 적힌 글보다 더 많은 흔적이 그 위를 덮고 있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단어를 지우고, 다시 쓰기를 수 없이 반복한 끝에 생긴 산이었다. 얼마 전, 학교에서 열리는 저작권 공모전에 내기 위해 시를 한 편 썼다. 오랜만에 컴퓨터 게임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도 저 멀리 치워 둔 채 책상에 앉았다. 하얀 종이를 앞에 두고 턱을 괴고 앉아 마음에 두는 낱말을 고르고 또 골랐다. 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일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쓰고,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지우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얼마나 열심히 지웠는지 책상 위에는 하얀 지우개 가루가 때처럼 잔뜩 묻혀 있었고, 손가락 옆면은 연필심 때문에 까맣게 물들었다. 마침내 시를 다 쓰고 나자 목도 빠근하고 손가락 마디마디도 아팠지만, 가슴 속에는 작은 기대가 피어올랐다. 이 넓고 험한 세상에서 오직 나만의 밤새도록 고민해 만들어 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시였기 때문이다. 내 손때가 묻은 종이를 바라보며 나는 한참 동안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런데 시를 다 쓰고 나니 마음 한 구석에서 문득 겁이 나기 시작했다. 내가 며칠 동안 고생해서 만든 시를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복사해 가면 어떨까? 내 이름은 흔적도 없이 지우고, 마치 자기가 밤새 고민해서 쓴 글인 것처럼 올려버린다면 나는 얼마나 억울할까? 지우개 가루를 만들어 가며 고민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아 그런 상상만으로도 속상했다. 그러자 얼굴이 화끈거리며 부끄러운 기억들이 떠올랐다. 나 역시 학교 숙제를 하거나 모둠 발표용 ppt를 만들 때 인터넷에 있는 예쁜 그림이나 글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가져와 쓴 적이 많기 때문이다. “어차피 검색하면 나오잖아.”, “학교 숙제에 잠깐 쓰는 건데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쓰는데 뭐”라며 스스로에게 핑계를 댔다. 하지만 직접 머리를 싸매고 힘들게 시를 써보니, 인터넷 화면 속에서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는 글과 그림도, 사실은 누군가의 책상 위에 쌓였던 또 다른 ‘지우개 가루’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노력만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시간과 정성은 가볍게 생각했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학교 도덕 시간에 저작권을 배울 때는 단지 시험을 위해 외워야 하는 어려운 법이라고만 생각했다. 위반하면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만 들었기에 나와는 상관없는 어른들의 규칙인 줄 알았다. 그러나 내가 직접 창작자가 되어보니 저작권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약속이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밤늦게까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노력을 존중합니다.”라고 말해주는 사회의 약속이었다. 우리가 문방구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때 당연히 값을 치르듯이, 눈에 보이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도, 그에 맞는 예의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깊이 깨달았다. 요즘은 우리 같은 초등학생들도 영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며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다. 내 친구들 중에도 웹툰 작가나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았다. 미래에 내가 만든 작품은堂堂하게 보호받고 싶다면 지금의 나부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사용할 때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내가 참고한 자료에는 반드시 출처를 남기는 것. 이것이 지금 내가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라고 생각한다.

내 손으로 꺾꺾 눌러 쓴 시가 이번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만큼, 나도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창작물을 더욱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싶다. 출처 한 줄은 단순히 글씨 몇 글자가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꿈을 존중한다는 약속이다. 나는 오늘도 책상 위에 남은 하얀 지우개 가루를 바라본다. 그 작은 가루들은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증명해 준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 글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정직함’이라는 마음을 함께 적어 내려갈 것이다. 처음에는 낯설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 모두를 가장 빛나게 하는 길이라고 믿는다.